2016 종단 결산

한국불교 쇄신, 대중 열망 'Hot' · 제도화 'Cold'

올해 한해 불교 각 종단은 불교계 안팎의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다양한 혁신이 시도됐다. '이대로는 불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쇄신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직선제를 비롯해 은퇴자 특수출가, 재정 투명화 등 일부 논의과정서 성과는 보였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에 현각 스님의 탈종선언과 함께 이어진 불교계 병폐 고발은 아직 불교계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렸다.

2017년에는 이러한 불교 쇄신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이뤄질까?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2016년 각 종단의 주요 활동을 되짚어 본다.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016 제1차 대중공사에서 참석대중이 불교발전을 서원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종도멸망이 확연히 드러났다.

성과 사상 최초 사찰재정 공개, 사업지주회사 출범

과제 직선제 · 은퇴출가 도입서 보인 승가인식 개선

비판 한국불교의 기복 · 차별 · 배타성 쓴소리 나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바람'

2017년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행정수장인 제35대 총무원장을 새롭게 뽑는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에는 이런 과정을 앞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3월 31일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 자리는 그 바람의 시작이었다. 전 지역에서 순회 대중공사를 열고 다시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2차 대중공사에서는 전체 대중공사 참가자 726명 중 61%가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어 종회 직선제 특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은 80.5%에 달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열망은 제도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월 8일 열린 제207차 정기회에서는 종헌 개정과 종법 개정 등의 절차상 난맥으로 차기 3월 임시회로 이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회에서 직선제 추진에 대해 비판을 받은 직선제 특위 구성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35대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2016년의 일련의 사태는 불자들이 얼마만큼 종단 쇄신을 염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총무원장 직선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특수출가는 지속 과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벽두 발표한 '은퇴자 특수출가제' 도입은 불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불교계 내부로는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기도 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출가특위를 구성해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 여의 비공개 속에 11월 8일 제207차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실체를 보인 은퇴자 출가제도는 대중들의 실망감만을 자아냈다. 만51세 이상, 70세 이하 은퇴자를 '수행법사'란 명칭으로 1년 간 활동하도록 한 '은퇴자 특수출가'안에 대해 수계 문제부터, 처우 문제까지 기존 승단의 반발이 반영됐다. 논란 끝에 종회에서 은퇴자 특수출가안은 기존 포교사 제도와 다를 바 없이 난도질 된 끝에 결국 부결되며 도입이 무산됐다.

한전부지 명분 · 실리도 못찾아

한전부지 개발 문제는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땅은 군사정권이 1970년대 강탈한 봉은사 토지였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3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 이하 환수위)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전부지 환수운동을 천명한데 이어 3월 2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경기 지역 불자 1만여명이 참여한 환수기원법회를 개최했다.

환수위는 4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 앞 2차 환수기원법회, 4월 29일 조계사부터 서울시청광장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환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그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건립 인허가 절차를 광속으로 밟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수운동을 옛 땅을 이제와 찾는다는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 가시화되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초고층 건물 건립으로 인한 난반사와 일조량 감소로 봉은사 문화재 등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채 6개월도 되지 않는 빠른 인허가 절차 과정 속에 현대차 그룹이 이 인허가를 위해 최순실 회사에 대가성 기부를 했다는 게이트 연루의혹까지 터지며 불교계의 공분은 더욱 짙어졌다. 현재 조계종은 12월 15일 최순실게이트 GBC 특혜 의혹 및 초고층 개발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새해에는 이 같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GBC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불교계 활동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재정확보 사업토대 마련

조계종은 사찰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확보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조계종은 2017년 본격적인 수익사업 전개를 앞두고 12월 사업지주회사 출범을 예고했다. 11월 16일 '조계종 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종무회의 의결과 공포 과정을 일어났다. 조계종이 4월 4일 조계사, 봉은사, 선본사, 보문사 등 직영사찰 4곳의 사찰 재정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번 재정 공개는 지난해 3월 제3차 100인 대중공사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해 연간 예산 30억원이 넘는 43곳의 사찰 재정 공개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이뤄진 사찰재정공개에 이어 조계종은 연 1회 재정공개 방침을 밝혔다. 시주 문화 등으로 현대화가 더딘 탓에 불교계의 재정 공개가 늦었지만 종단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 사상 최초 사찰재정 공개도

쇄신 바람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일도 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 초 출판사가 영리법인으로 확대 개편되면 출판 및 서적 도 · 소매업을 기반으로 △기획물제작대행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제작 및 판매업 △행사기획 및 대행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직접 사업 혹은 자회사 운영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각, '한국불교 결별' 자정 계기?

올해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미국인 현각 스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혀 불교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각 스님은 7월 27일 페이스북에서 "한국불교를 떠나겠다"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었다. 스님이 제시한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기복 △차별 △배타주의로 축약된다.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불자대중들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갈려 설전을 벌였다.

현각 스님의 발언을 두고 한국불교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대중들의 숙제로 남았다.

진각종, 100년 도약 시작 원년

올해 창종 70년을 맞은 진각종은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에서 '제12대 총인 회정정사 추대법회와 제30대 통리원장 회성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반 취임은 진각종 창종 이후 종조 1세대, 종조 제자 2세대에 이어 3세대가 행정수반 역할을 맡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지닌다.

진각종은 이에 앞서 3월 29일 창종 70주년을 기념한 밀교문화총람 편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총람 편찬을 통해 한국불교 내 밀교문화가 집대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불교도 축제 WFB, 서울에서

전세계 불교도들의 대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진각종 총인원 일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태국과 스리랑카 등 전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WFB 서울총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북핵 문제와 잇따른 전세계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2년 뒤 2018년 11월 일본 나리타서 열릴 '제29차 총회'에 WFB 회원들은 또 어떤 해법을 들고 모일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50세 이상도 출가 허용' 추진

출가특위, 3월 종회 발의 계획

조계종이 현행 50세 이하로 제한된 출가연령에 대한 상향을 논의한다.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늦깍이 출가자를 정식 출가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출가특위)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종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7차 정기회에서 부결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발의 여부가 검토됐다. 출가특위 위원들은 "은퇴출가제도는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 오히려 발심을 꺾는다"며 "부처님법에는 출가 나이제한이 없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출가연령제한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속에 출가특위는 출가연령 상한으로 인한 종단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논의했다.

출가특위는 '은퇴자 특별법'을 수정 보완해 내년 3월 임시회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출가연령제한 상향과 귀종승 제도 현실화 등에 대한 종법개정안도 내년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내년도 조계종 장학승 15명 선정

장학위, 12월 19일 발표

2017년 조계종 장학승 15명이 확정됐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15일 제4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에서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장학승을 선발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승은 해외 5명, 국내 4명, 사찰승가대학원 6명 등 석 · 박사 과정 재학생 15명이다.

해외 장학승으로는 혜융(독일 함부르크대학, 대승불교 박사), 효은(영국 브리스톨대학, 초기불교 박사), 세등(미국 하버드대학, 종교학 석사), 향산(일본 하나조노대학, 대승불교 석사), 종본(일본 동경대, 초기불교 석사)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장학승은 곡중(동국대, 불교학 박사), 자운(동국대, 계율 석사), 현우(중앙승가대, 불교문화 석사), 여서(동국대, 불교문화 석사) 스님이 선발됐다.

사찰승가대학원 재학 중인 대산(선운사, 초기불전), 수미(해인사, 계율), 명신(청암사, 계율), 대안(청암사, 계율), 선정(봉녕사, 계율), 혜강(청암사, 계율) 스님이 전공연구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위원회는 총 1억1450만원을 매년 장학승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 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 (회장 이 · 취임식)

청정한 공양 희유하고 아름다워라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여념이 없으신 대덕 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는 제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과 아울러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덕 높으신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법하게 승보공양을 올립니다.



- 일 시 : **2017. 1. 8 (일) 오후 2시**
- 장 소 :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신관)
- 대 상 : 부산지역 및 인근지역 대한불교조계종 스님 및 불자
- 문 의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